2006년 KBO 루키 3인방 'ML 전성시대' 연다

왼쪽부터 류현진, 강정호, 김현수.

김현수 볼티모어와 계약 완료…류현진·강정호 복귀 준비 착착

2006년 한국프로야구에 등장한 '무서운 고졸 신인'들이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에서 만난다.

김현수(27)는 24일 미국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내민 계약서에 최종 사인했고, 등번호 25번이 박힌 유니폼을 받았다. 볼티모어는 곧바로 김현수를 40인 로스터에 등록했다. 현재까지는 2016시즌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 입성도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김현수가 볼티모어와 계약하면서 '2006년 KBO 고졸 신인 전성시대'가 열렸다. 김현수는 1988년 1월생으로, 학창 시절을 1987년생과 함께 보냈다. 2012년 12월 사상 최초로 한국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 2015년 1월 KBO리그 출신 한국인 야수 중 최초로 메이저리그 계약을 한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김현수의 친구다. 김현수는 처음으로 한국프로야구에서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고 메이저리그에 직행하는 역사를 썼다.

동갑내기 친구 3명 모두 한국 야구사에 길이 남을 장면을 연출했다. 중, 고교를 거치며 얼굴을 익힌 3명이 친분을 쌓기 시작한 건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였다.

동산고 투수 류현진과 신일고 내야수 김현수, 광주일고 포수 강정호는 이때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사실 당시 대표팀에서 크게 주목받은 선수는 시속 150㎞를 넘는 직구를 뿌린 한 기주(당시 동성고·현 KIA 타이거즈)와 고교 2학년으로 태극마크를 단 김광현(당시 안산공고·현 SK 와이번스)이었다. 대표팀은 안방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프로 무대에서 1987년생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류현진은 2006년 프로에 입성하자마자 18승 6패 평균자책점 2.23, 204탈삼진을 기록하며 트리플 크라운(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1위)을 달성해 신인왕과 정규시즌 최우수선수상을 석권했다. 신인지명회에에서 프로 구단의 외면을 받고 신고선수로 두산에 입단하는 아픔을 겪은 김현수는 2007년 주전 외야수로 도약했고, 2008년 타격왕(타율 0.357)에 오르며 '타격 기계'의 명성을 얻었다. 강정호는 2008년부터 주전 내야수로 활약했고, 시즌을 더할수록 '공격과 수비를 겸비한 유격수'의 위력을 뽐냈다. 2010년에는 류현진과 김현수, 강정호가 모두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 무대를 평정한 류현진과 강정호는 세계 최고 선수가 모이는 빅리그에서도 돋보였다. 류현진은 2013년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하며 한국인 투수의 자존심을 세웠다. 강정호는 2015년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을 올리며 한국인 내야수에 대한 메이저리그 구단의 평가를 바꿔놨다.

류현진은 올해 5월 어깨 수술을 받아 한 경기도 마운드에 서지 못하고 시즌을 마쳤다. 강정호는 9월 18일 상대 주자의 과격한 슬라이딩에 걸려 무릎 수술을 받았다. 최근 류현진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과 강정호의 사진을 올리며 "2016년, 함께 도약하자(Let's rise together 2016). 우정"이라고 적었다. 김현수가 볼티모어와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류현진이 응원할 친구가 한 명 더 늘었다. 가장 크고 높은 무대에서 류현진, 강정호, 김현수가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걸고 뛴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심판합의판정 제도 바뀐다
ML처럼 판독관 '아웃·세이프' 판정

중계방송 화면에 의존하던 프로야구의 심판합의판정 제도가 획기적으로 진화한다. KBO도 내년부터 메이저리그처럼 전문 판독관이 자체 영상을 보고 '아웃·세이프' 등 최종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KBO 관계자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심판합의 판정을 보완하고자 내년 가칭 '심판합의판정 판독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비디오 판독 장비 납품업체 선정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BO가 영상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방송사 중계 화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더 정확한 합의 판정을 내리려는 의도다. 프로야구는 2009년부터 홈런에 한해 비디오 판독으로 최종 판정을 했다.

그러나 2014시즌 오심 시비가 크게 불거지자 후반기부터 외야타구의 페어와 파울, 포스 또는 태그플레이 아웃과 세이프, 야수의 포구(파울팁 포함), 몸에 맞는 공 등으로 비디오 판독을 확대했다.하지만 '판독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자체적으로 비디오 판독 장비를 갖추지 않고 심판합의판정 제도를 만들다 보니 전적으로 방송사 화면에 의존해야 했다. 방송 카메라가 놓친 장면은 판독할 수 없었고, 해당 장면을 여러 번 돌려보는 것도 방송사의 결정에 따라야 했다.

간혹 방송중계를 하지 않는 경기는 비디오판독조차 불가능했다. 또한, 판정을 내린 심판이 중계 화면을 보고 다시 판정을 내리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고 비디오 판독을 하고도 각 구단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도 있었다.

KBO 관계자는 "방송사 화면에 의존하는 방식은 어쩔수 없는 일시적인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 메이저리그처럼 자체 화면으로, 전문 판독관이 판정하는 방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KBO가 자체 영상 판독 기능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용 서버, IP 코덱(원격 영상감시 분야 영상 압출기술)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은 중요한 첫 걸음이다.

KBO는 각 구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체 영상을 만들어, 이 화면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연합뉴스

"필승!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KIA 박준태·박정수·이종석 경찰청 동반 입대

KIA 박준태(24·외야수)·박정수(19·투수)·이종석(23·투수)이 '따뜻한 배웅' 속에 잠시 작별을 고했다.

24일 삭발 머리의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섰다. 내년 시즌부터 2년간 경찰청 유니폼을 입게 된 박준태·박정수·이종석은 이날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했다. 세 사람은 정든 곳을 떠난다는 섭섭함과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속에 찬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걸음을 했지만 든든한 동행이 있어 따뜻했던 하루였다. 박준태의 각별한 친구 이인행(24)·박상옥(24)과 후배 황대인(19)이 논산을 찾으면서 유쾌한 작별이 이뤄졌다.

가장 먼저 논산 훈련소에 도착한 박준태는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잘라내면서 비로소 군대에 간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색해진 머리를 어루만지는 박준태를 향해 유일한 군필이자 경찰청 선배인 이인행은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친구를 응원했다. 공익근무를 앞두고 있는 박상옥에게도 남일 같지 않은 조언이었다.

황대인은 "이미 내가 이곳에 있어야 했다"는 말로 선배들을 웃겼다. 상무에 지원했던 황대인은 예상과 달리 최종에서 낙방을 하면서 머쓱한 경험을 했다.

상무 최종발표날 윈터리그 참여를 위해 출국했던 황대인은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마음의 준비까지 끝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합격자들은 지난 21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KIA 황대인(왼쪽부터), 박상옥, 박정수, 박준태, 이종석, 이인행이 24일 논산훈련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병장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한 세 사람은 더 큰 도약을 위한 2년을 다짐했다.

강견으로 눈길을 끌었던 박준태는 올 시즌 삼성전에서 슈퍼 캐치로 승리를 완성하며 환호를 받았지만 잇단 실수로 아찔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 타격도 마음 같지 않았다.

박준태는 "올 시즌은 좋은 경험이 됐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칭찬도 받았지만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받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막상 입대날이 되니 착잡하기는 하지만 발전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히 잘 다녀오겠다"고 밝혔다.

KIA를 대표하는 꽃미남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기도 했던 박정수는 고운 외모와는 다른 오기와 승부 근성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유망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년 만에 일찍 군대로 떠나게 됐지만 홀가분한 박정수다.

박정수는 "일찍 군대를 다녀오는 게 나한테 좋은 것 같다. 올 시즌 1군 무대에서 뛰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 힘과 스피드가 부족하다. 일단 군대에서 몸을 많이 키울 생각이다. 많이 배우고 자라서 돌아오겠다"고 언급했다.

뛰어난 구위로 기회를 받았던 이종석은 1군에서 뛴 두 경기를 가슴에 안고 간다.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자신을 채찍질할 보약 같은 기억이다.

이종석은 "1군 경험을 해봤지만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드렸다. 돌아와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2년의 시간을 잘 보내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2차 드래프트를 통해 kt에서 KIA로 이적한 투수 이윤학도 이날 경찰청야구단 선수로 새출발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